국 제 수 산 월 간 동 향

2022. 7

한국원양산업협회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목 차

1 ····· 중국 정부-원양 업계, 소말리아 진출 위한 회의 개최

2 ····· 아랍에미리트(UAE) 수산보조금 정책 발표

3 ····· 라보뱅크: 세계 수산물 수요 정점 찍고 반락 전망

4 ····· 오만, IUU어업 근절 위해 ISRAR선박을 등록 목록에서 제거

5 ····· EU 선망어업을 위협하는 '어종별 허용오차 10%'

6 ····· NGO, 미국에서 청상아리 보호를 위한 제소 준비

1 중국 정부-원양 업계, 소말리아 진출 위한 회의 개최

□ 중국 어선의 규제 준수 강조 및 중국 어선의 소말리아 수역 내 불법 조업 혐의 부정

○ 중국 정부 및 원양 업계가 소말리아 수역 내 조업 기회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음

○ 주 소말리아 중국대사가 주재한 본 회의에는 중국 농업부 수산국, 중국 원양협회와 업계 대표 등이 참여

○ 주 소말리아 중국대사는 해외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중국 및 소말리아 법과 규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 중국 농업부 수산국에서는 중국 업계와 소말리아 관련 부처 소통과 관계 증진 및 중국 선원과 외국인 선원의 협력을 강조

○ 일부 중국 원양 선사는 이미 아프리카 수역에서 다랑어 등 어종을 조업 중이며,

- 현재 소말리아 수역에서 일부 중국과 이란 선박이 불법 조업 혐의를 받고 있음

- 그리고 중국 미디어는 중국의 소말리아 전투기 공급의 일부가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의 조업권의 형태로 지불되었다고 보도

○ '22년 소말리아 미디어에서 제기된 소말리아 수역 내 중국 조업에 관하여 질문하자, 중국대사는 출처 없는 "허위 정보"가 양국(소말리아-중국)의 입어 협정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답변

○ '20년 소말리아는 소말리아 수역에서 조업 중인 이란 국적 조업선들에 관한 정보를 이란에게 요청하였음

○ Global Fishing Watch와 Trygg MAt Tracking의 '22년 보고서에 따르면 '19년 1월부터 '20년 4월 기간의 데이터에 따르면 소말리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 Trygg Mat Tracking 이사 Duncan Copland는 소말리아 EEZ에서 발견되는 이란 선단이 "세계에서 가장 큰 불법 조업 선단 중 하나"로 보인다고 상황을 묘사함

※ 출처: SeafoodSource[1)]

1)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chinese-officials-meet-to-discuss-fishing-opportunities-in-somalia

2 아랍에미리트(UAE) 수산보조금 정책 발표

□ WTO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보조금 지금 결정

- ㅇ 아랍에미리트(UAE)가 수산 부문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함
- ㅇ UAE 기후변화 및 환경부는 아부다비 국영석유공사와 에미리트 국영석유공사와 함께 어민 지원을 위한 보조금 제도를 실행할 계획임
- ㅇ 본 보조금 사업은 UAE 기후변화 및 환경부 장관 Mariam bin Mohammed Albheiri가 어민 협회와 간담회를 가진 후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 본 연료 보조금은 상승하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을 위한 단기 지원책으로 설계되었음
- ㅇ 보조금은 총소득과 조업 활동, 가족 크기 및 어업 종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22년 500명의 어민에게 지급될 예정
- ㅇ 본 보조금 정책은 WTO에서 많은 국가들이 세계 수산업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해 수산 업계에 대한 자국 자금지원을 억제하기로 합의한 시점에 발표되었음
- ㅇ 하지만 WTO의 최근 합의가 모든 보조금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음
  - 이번 수산보조금 합의는 공해 및 타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유류세 감면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있지 않음
- ㅇ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산치에 따르면 세계 수산 업계 보조금은 총 350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항국에 양륙되는 전체 해양 수산물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하는 양임
- ㅇ OECD는 대부분의 보조금은 장기적으로 수산업에 해로우며 수산자원의 남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연료비 지원과 같이 단순히 어민의 운영비용을 축소하는 형태의 보조금을 가장 해로운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목하고,

- 이러한 보조금들이 취약 계층인 소규모 어민보다는 대형 선단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문제를 지적함

o 여전히 UAE의 경제 구조는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의존도를 보이며, 현재 UAE의 수산 부문은 전체 UAE 경제에 기여도가 작음

o 하지만 UAE 수산업은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 산업임

- FAO 통계에 따르면 UAE는 약 73,000톤의 UAE는 돔, 새우, 틸라피아 등을 어획하고 있으며,

- UAE는 특히 양식업 확대를 통해 자국 수산업 진흥을 시도하고 있음

※ 출처: SeafoodSource[2)]

2)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uae-proposes-fuel-subsidy-for-fisheries-sector-amid-rising-costs

3 라보뱅크: 세계 수산물 수요 정점 찍고 반락 전망

□ **라보뱅크 연구소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부터 생산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였음**

○ 세계 연어 어부들은 1년 반 동안 높은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큰 이익을 누렸으나 2022년 말까지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정상화 될 것으로 전망함

○ 새우 산업의 경우 새우 공급량이 2022년 상반기처럼 증가하거나 수요가 불황기의 영향으로 감소하게 되면 새우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이미 비슷한 현상을 경험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상반기에 연어와 새우에 대한 수요 및 가격 모두 최고 기록을 경험하였으나,
- 하반기에는 그 기록이 원래대로 복구될 것으로 전망됨

○ 보고서에 따르면 EU와 미국에서는 팬대믹 회복에 따라 수산물 불황기가 이미 시작되었음

○ 중국의 경우 새우와 연어에 대한 수요 및 수입이 지속해서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 제재로 인한 수입 제한이 없는 경우 공급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

- 2022년 4분기에는 중국이 주요 수요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되나 코로나 19로 인한 수입 봉쇄가 그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 있음

○ 북아메리카의 경우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지만,

- 외식산업에 대한 수요가 분명하게 감소하는 추세로 미국에게는 장기적 위기의 시작일 수 있어 우려됨

○ 남아메리카 중에서도 에콰도르는 새우 공급을 지속해서 늘리고 있으며 칠레의 연어 생산도 2022년 하반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출처: www.seafoodsource.com [3)]

3)https://www.seafoodsource.com/news/supply-trade/rabobank-global-seafood-demand-has-peaked-and-will-now-weaken

4 오만, IUU 어업 근절 위해 ISRAR선박을 등록 목록에서 제거

□ **오만은 오랜 기간 조사 끝에 선박 ISRAR 1,2,3를 국가 허가 선박 목록에서 제거하여 IUU 어업 근절을 위하여 이바지하였음**

ㅇ 환경 정의 재단(EJF)의 조사로 선박의 불법 어업 활동이 포착되어 오랜 논의 끝에 오만의 국가 선박 등록 목록에서 제거되었음

ㅇ 해당 선박의 과거 어업을 증명하는 문서가 불충분하였으며 오만의 수산부에서 수집한 증거 또한 입증하는데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ㅇ ISRAR 1,2,3 선박은 발견을 피하고자 온갖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남

- 선박의 국기를 변경하거나 아예 국기 없이 어업을 한 일도 있으며
- 해상에서 선박 ID를 변경하거나 선원 또는 보급품을 비밀리에 이동한 경우도 적발되었으며 불법 전재 또한 저지른 것으로 알려짐

ㅇ 선박이 문제를 일으켜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님

-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는 본 선박을 2021년 IUU 선박 목록에 추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보험 커버리지 자격을 잃었음
- 5월에는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에서 IUU 선박 목록에 추가되었음

ㅇ 조사를 위하여 8개국의 권한 당국, 수산관리기구, EU 및 국제경찰(Interpol)까지 관여하였음

ㅇ 오만과 국제수산기구에서 블랙리스트에 추가됨으로 인하여

- 어획물을 판매할 수 없으며 보험의 자격을 잃었으며,
- 해당 선박의 어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른 기국을 찾아다녀야 할 것

ㅇ 다른 정부에서 해당 선박을 등록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 출처: www.seafoodsource.com [4]

4)https://www.seafoodsource.com/news/environment-sustainability/oman-delists-fleet-boosts-campaign-against-iuu-fishing

5 EU 선망어업을 위협하는 '어종별 허용오차 10%'

- 초근 프랑스 참치 협회 Orthongel은 EU에 부과하는 통제 조치들이 선단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유럽 선주 협회인 Europêche도 EU의 통제 조치가 유럽의 다른 열대참치 선단들에게도 적용된다고 하였음.

- Europêche에 따르면, EU 선박들에게만 적용되는 '어종별 허용오차 10%'는 EU 참치 선망선들이 인도양과 대서양에서 수년 내 선박 운항을 중단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함.

- 문제의 핵심은 선장이 매 투망 후 어획된 참치의 양과 어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으면서 동시에 어획물을 냉동 어창에 신속히 이동시켜야 하는 점(수온 30도 이상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들에게 요구)임.

- 어종들이 외관상 식별하기 곤란한 점으로 인해 이는 선박에게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를 정확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상당한 벌칙이 부과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기술이 개발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것이 열대참치 선단들은 어종별이 아닌 선내 총어획량 대비 10% 허용오차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유럽의회는 선망어업의 특성을 고려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유럽위원회는 규칙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Europêche 참치국장 Anne-France Mattlet이 말했음.

- '결과적으로, 선박과 선장들은 계속해서 제재를 받고 있고, 벌점이 누적되고 있다. 이는 불가피하게 어업 면허 정치와 EU 선박들이 출어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같은 통제 및 환경, 보건, 노동 규칙을 적용받고 있지 않은 비EU 선박들은 계속해서 조업할 것이다. 일부 비EU 국가들은 국제기구에서 결정된 어획한도도 이행하지 않는다.'

- Orthongel은 경제분석 전문회사 Rinzen에 규제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음. 결과는 분명하였음 – 규제가 계속될 경우, 2026년이 되면, 참치 선망어업의 경제성이 하락하여 결과적으로 1600개의 프랑스 일자리가 없어질 것임.

- Europêche는 스페인에도 이러한 규제가 적용됨으로써 많은 선박들이 2개월 이상 운항을 못하였고, 2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함.

- '연구는 연료비 상승과 코로나로 인한 수지 악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더 나쁠 수 있다. 이러한 위기 기간에서도 EU 참치 선단들은 통조림 공장에 참치를 공급하고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운항을 계속했다'고 Anne-France Mattlet는 말했음.

- '이는 이 규칙 적용 불가능성의 직접적인 효과이다. Europêche는 열대참치 어종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 총어획량 대비 10% 허용 오차를 위해 로비하고 있다'고 말했음.

출처: fiskerforum.com [5]

5) https://fiskerforum.com/impossible-regulations-threaten-whole-eu-tropical-tuna-sector/ (2022년 7월 15일 기사)

6 NGO, 미국에서 청상아리 보호를 위한 제소 준비

ㅇ NGO Defenders of Wildlife와 생물다양성센터는 멸종위기종 보호법에 따른 청상아리 보호에 실패한 것을 이유로 미국 해양수산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표명하였음.

ㅇ 동 법은 해양수산청이 등재 청원을 접수하면 90일간의 심사를 거친 후 12개월 내 멸종위기종 지정 검토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Defenders of Wildlife는 2021년 1월 25일에 등재 청원을 제출하였음. 해양수산청은 90일 심사를 거친 후 2021년 4월 15일에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는 최종 등재여부 결정은 늦어도 2022년 1월 25일까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ㅇ "청상아리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상어이지만, 멸종으로부터 도망가지는 못한다"고 Defenders of Wildlife 선임 변호사는 말했음. "정부는 과학을 존중해야 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연방정부에 의한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해양수산 야생종 보존에 관한 미국의 리더십을 국내외에 증명해 보일 것이다."

ㅇ 청상아리는 열대 및 온대해역에 걸쳐 분포하는 고도회유성 어종임. 청상아리는 목표어업에 의한 과도어획과 부수어획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음. 높은 가치를 가지는 청상아리의 지느러미와 고기는 이러한 과도어획의 유인이 되고 있음.

ㅇ "보존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국제 과학계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청은 청상아리 보호에 실패하였다"고 생물다양성센터의 Alex Oilvera는 말했음. "세계 다른 나라에서는 이 종을 멸종으로부터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에도, 미국 멸종위기종 보호법 아래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빨리 변해야 한다."

ㅇ 과도어획은 대서양 청상아리 자원량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고 북태평양과 인도양에서는 보다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북대서양에서, 과학자들은 당장 오늘부터 어획을 멈추어도, 자원회복을 위해서는 5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과도어획으로 인한 위협은 해양오염, 기후변화 및 기타 요인들과 함께 청상아리를 멸종으로 치닫게 하고 있음.

ㅇ 2019년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은 청상아리를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였음. 2021년에 대서양 참치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간 기구인 대서양참

치보존위원회(ICCAT)는 북대서양 청상아리의 보유, 전재 및 양륙을 2년간 금지하기로 결정하여 청상아리가 우연적으로 어획이 되었을 때에도 어업인은 이 상어를 보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최상위 포식자인 청상아리는 해양 먹이사슬의 중요한 일부로서, 아래 단계의 많은 어종들을 관리하고 있음. 청상아리의 급격한 감소는 해양생태계의 교란을 가져올 것임. 장수하고 번식속도가 느린 어종인 청상아리는 이미 진행된 종 감소로부터 신속히 회복되기 어려움.

- 등재 청원은 해양수산청이 청상아리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하는 것을 검토하게 하고 특히 단순 청상아리(longfin mako)와 같이 유사하게 보이는 종에게도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함.

- 등재 청원에 대한 심사 후, 해양수산청은 가용한 최선의 과학과 상업적 데이터를 토대로, 청원 접수 후 90일 내,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함 : (1) 등재 청원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호조치안을 제안한다; (2) 등재 청원이 이유 있지만, 우선순위 보호활동은 배제한다; (3) 등재 청원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12개월 기한은 연방법규로 정해진 기한임.

※ 출처: biologicaldiversity.org [6]

6) https://biologicaldiversity.org/w/news/press-releases/lawsuit-launched-over-federal-failure-to-protect-shortfin-mako-shark-2022-06-28/ (2022년 6월 28일 기사)